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상담 안내

기초 상담 프로그램 소개

기초 상담은 성격, 진로, 학업계획, 장래희망 등 교육생 개인의 특성을 바탕으로 향후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다양한 검사를 통해 객관적인 특성을 진단하고, 진로·영재특성·고민 등 교육생 개인의 요구에 맞는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교육생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구체적 진로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순서	세부 내용
기질 및 성격 검사 (JTCI) 결과 해석	• 타고난 특성과 후천적인 특성을 구분하여 파악함으로써 발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개선점 확인
청소년 진로발달검사 결과 해석	• 진로결정수준과 진로방해요인을 확인하고 점검하여 진로 방향의 수립 및 구체화 지원
스트레스 지수 검사 실시 및 해석	• 검사를 통해 전반적인 스트레스 수준 확인 •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및 이완 기술 전달
샐리그만 장점 검사 실시 및 해석	• 간단한 검사를 통해 개인의 장점 요소를 확인
개별 요구에 맞는 상담	• 영재성·도래관계·가족관계·역량 등 개별 요구에 맞게 상담 실시



2기 교육생 기초상담 현황 및 향후 일정

차세대영재기업인 2기 교육생 기초 상담은 4월 현재 서울과 경기지역에 대한 상담이 마무리 단계이고, 총 34명이 상담에 참여하였습니다. 5월에 충청, 전라, 강원지역, 6월에 경상지역 상담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상담 장소 및 상담 신청은 개별 안내하고 있으니, 메일을 참조바랍니다.

온라인 상담 및 전화 상담 공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신청서와 상담내용을 작성하시면 센터 전문위원이 직접 답글을 달아드립니다. 전화상담은 평일, 대표전화(02-3459-2928)를 이용해 주십시오.

인세

[IP世]; IP세상, 세상을 세움

가정에서의 영재자녀 양육 전략(1)

십여년 간의 미국생활에서 돌아온 후, 한 아이의 부모이자 영재 교육자로서 자녀교육에 있어 한국에서 가장 강하게 느꼈던 점은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개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녀의 불행과 행복, 성공과 실패가 마치 자신들의 책임이라 굳게 믿고 계시는 듯 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부모책임론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가 독립적 인격체라는 인간관계의 기본적 전제가 무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인생 전부를 바치는 부모님과 이를 지나친 관심과 통제로 받아들이는 자녀 간의 대립은 양측 모두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줄 뿐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 불편한 감정마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자녀는 편안하고 가까워야 할 부모님과 거리를 두게 되고,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해야 할 가장 가까운 대상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는 자녀와 부모님 모두가 원하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영재 자녀의 잠재성을 극대로 끌어내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녀양육을 위해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녀와 부모님 모두에게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 그리고 부모로서 자율성을 키울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등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 스스로가 편안하고 여유로워야 자녀에게도 그러한 태도를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둘째, 유머감각을 가지고 자녀를 대해야 합니다. 빌 게이츠의 어머니인 메리 게이츠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 다양한 아이디어와 게임을 통해 자녀들을 항상 재미있고 즐겁게 해주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합니다. 유머감각은 자녀들의 창의성을 높이는 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셋째, 자녀양육에 관해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입시전문가가 아닌 다방면의 전문가(인지, 정서, 진로 등)와 자녀에 대해 상의하여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그에 맞는 전문적 조언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는 의사소통으로부터 시작되며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와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이때 대화란 두 사람이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 시도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영재들은 뛰어난 인지 능력으로 인해 상대방의 의도를 즉각 파악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고 편안한 의사소통이야말로 특별함을 지닌 영재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따뜻한 보호와 지지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영재자녀와 의사소통하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녀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부모님들이 종종 사용하시는 "너의 미래를 위해" 또는 "다른 아이들과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라는 추상적이고 부모님 위주의 언어보다는 자녀의

관심과 목표에 관해 대화 하십시오. 필자와 상담했던 한 학생은 자신의 관심분야를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고 흥미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과학고등학교에 진학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즉, 과학고등학교 진학은 뚜렷한 내적동기에 의한 자율적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호기심과 흥미로 인해 시험 기간 중에 시험과목과 상관없는 다른 것들이 떠올라 시간을 빼앗긴다는 고민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자신의 그러한 성향을 알고 공부하는 내내 옆을 지키며 잔소리 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 학생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시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약속하였습니다. 자신이 과학고등학교에 진학하려 했던 본래 이유 즉, 자신이 더욱 행복해지기 위해 스스로 과학고등학교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은 어머니의 잔소리가 자기 주도적 선택에 대한 책임감이나 목적의식을 상실하도록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녀가 호소하는 불안이나 긴장감을 간파 하십시오. 영재학생들은 목적의식이 뚜렷하고 스스로에게 높은 기대수준을 부여해 일반학생보다 많은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엄격함으로 인해 긴장감이나 스트레스를 인식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보이는 도움에 대한 작은 신호나 호소를 놓치지 말고 필요한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는 자녀들이 보내는 숨겨진 메시지(hidden message)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재학생들은 자신의 고민이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건망증, 두통, 남들이 뒤에서 비웃는 듯한 느낌, 열등감, 같은 일에 대한 반복 등은 영재학생들의 자주 보이는 스트레스

증상들입니다. 또한 부모님의 관심을 호소하기 위해 오히려 Negative Attention¹⁾을 받는 행동들(학교에서의 문제 행동, 가정에서의 형제에 대한 질투 등)을 하는 경우 자녀들이 말하고자 하는 참 뜻을 파악해 감싸안아야 합니다. 영재자녀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전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전략들을 적절히 사용하여 자녀들과 마음이 통하는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 1 자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대화하기
- 2 자녀의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 3 자녀가 느끼는 어려움이나 불안감을 인식하기
- 4 자녀가 하고자 하는 말을 기꺼이 들으려 하기
- 5 자녀의 말에 숨어 있는 메시지 파악하기
- 6 전문가와 상의하기

주 1) 문제를 일으켜 부모와 주위의 관심을 끌려는 행동양식

이 행은 전문위원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교육학 박사 / 교육심리, 영재창의성 전공
helee71@kipa.org / 02-3459-2745



부모 커리어코칭(CAREER COACHING) 시리즈 ③

직업세계로의 여행준비 도와주기

자녀가 스스로의 가능성을 탐색하여 미래를 설계하는 법을 배우면서,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부모 커리어코칭 2단계는 자신에 대한 정보수집이었습니다. 부모 커리어코칭 3단계는 자녀가 자신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관심 있는 직업세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가 직접 관심 직업분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행을 예로 들면 여행사나 다른 사람이 계획해 준 여행보다 자신이 직접 준비해서 가는 여행이 더 의미 있고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자녀의 직업세계 여행을 대신 준비해주는 것이 아니라, 관심 직업분야에 대한 책이나 잡지, 직업사전, 인터넷 자료를 통해 정보를 직접 수집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자신의 것으로 만들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가 수집한 정보에 대하여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때 부모님은 자녀가 선택한 직업과 수집한 정보의 문제점을 직접 지적하기보다 자녀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부족한

점을 알아가도록 안내해주셔야 합니다.

셋째, 부모님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자녀의 관심 직업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시는 것입니다. 관심 직업분야의 기능성과 필요한 능력, 한계점 및 스트레스 요인 등에 대한 실제 경험을 듣게 되면 자녀가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 합리적인 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부모님의 직업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그에 대한 태도 등도 함께 이야기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네 번째는 자녀가 관심 직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녀는 자신의 능력과 선택한 직업과의 적합성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직업탐색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자녀의 직업탐색이 성장에서 갖는 의미와 가치를 함께 이야기하고 도와주며, 긍정적이고 다양한 보상으로 포기하지 않도록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커리어코칭 3단계: 자녀의 직업세계 여행 도와주는과정



자녀가 직업분야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도록 돕기



자녀가 선택 직업분야와 수집한 정보를 존중하며 함께 이야기하기



자녀의 직업탐색을 위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직접적인 직업 체험 기회를 마련해주기

유 효 현 전문위원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교육학 박사 / 교육심리학 전공
hhyoo@kipa.org / 02-3459-2746



인지적으로 바라본 발명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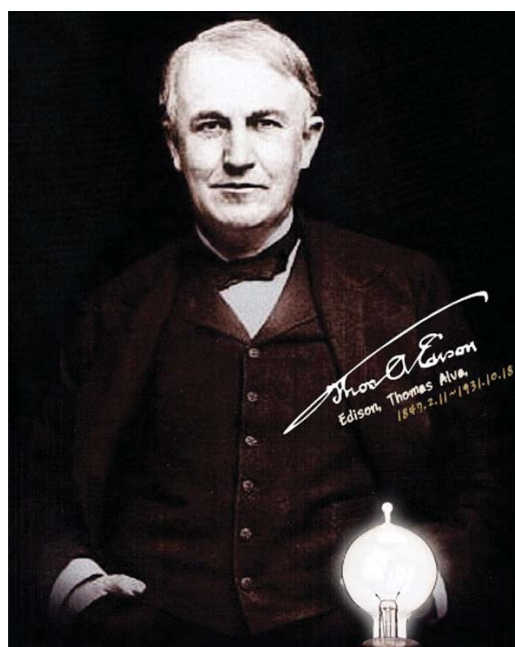
차세대영재기업인 기초 상담을 통해 교육생들과 만나다보면, 특허청 발명교실에 다닌 적이 있는 아이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 중 적지 않은 아이들에게 ‘발명’이라는 체험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됩니다. 발명이라는 체험이 많은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랍기도 하지만, 창의적 사고의 결정체일 것으로 짐작되는 발명 활동을 통해 사고력을 기르고, 특히 아이디어를 창안하고 그 생각을 발전시켜 나름대로 완성하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는 점은 우리 아이들이 발명을 통해 얻으리라 기대할 만한 효과일 것 같습니다.

물론 상식적으로는 위와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발명을 하면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겠지’ 막연히 추측할 수 있고, 어떤 점에서는 그것이 영 틀린 말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발명이 좋다는 것은 알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좋은지에 대해서는 그리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발명을 해야 하지요? 발명이 우리 아이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지요?’라는 질문이 부모님들께서 정말로 궁금하신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큰 꿈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발명’이라는 체험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그 효과와 이유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사례 : 에디슨의 경우

발명의 효과를 맛보기 위한 손쉬운 접근으로



발명으로 유명한 사람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의 뛰어난 점을 찾아보고 그 자질과 발명 활동 간의 관계를 역추적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뛰어난 자질과 발명이 주고 받은 영향에 대한 조금의 비약을 감수하고 말이지요.

발명하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이름, 에디슨이 전구를 개발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에디슨은 전구 안에 들어가는 점화부를 만들 꼭 맞는 재료를 찾기 위해 셀 수 없이 많은 가능성들과 씨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에디슨 이전에 많은 연구자들은 탄소를 이용해 점화부를 만들었는데, 이러한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의 전구는 백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백금 또한 문제점을 드러내게 되자 에디슨은 이전의 모든 실패와 당시에 백금으로 만들어진 점화부가 가진 문제점들을 분석한 결과로서 진공의 필요성을 도출해 냈습니다. 이후 각종 문헌 자료를 기초로 진공 펌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 결과로 진공의 사용은 탄소를 다시 사용하게 되는 귀절을 낳았고, 그렇게 오늘날의 전구가 탄생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 : 카카오톡(CACAO TALK)

또 다른 사례를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유저들뿐만 아니라 일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전체를 움직일 정도의 큰 성공을 거둔 카카오톡입니다. 카카오톡은 사회관계형(SNS) 모바일 메신저 소프트웨어로서 1년 만에 ‘1일 평균 가입자수 5만5,000명’, ‘1일 메시지 교환 건수

2억건’, ‘가입자 1인당 친구 수 50명’, ‘전 세계 사용 국가 216개국’, ‘총 누적가입자 수 1,000만’이라는 신화적



수치를 달성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카카오톡이 스마트폰을 살렸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카카오톡의 인기는 대단합니다.

그러나 희비는 갈리고 갈등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기반으로 서비스되는 카카오톡 특성상, 카카오톡 이용자 증가는 망 과부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연히 카카오톡 가입자 증가에 따른 망부하로 통화품질까지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통신사와의 갈등은 어찌면 자연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현재 이동통신사의 단문메시지(SMS)는 건당 20원이고, 사진과 동영상을 첨부하는 멀티미디어메시지(MMS)는 30원인데, 카카오톡 이용자가 하루에 사용하는 SMS가 평균 2억건을 넘어선 것을 감안하면, 통신사 측에선 하루에만 40억원 이상의 시장을 고스란히 내주는 꼴이라고 합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그의 말대로 이 상황을 ‘대화’로 잘 풀어갈 수 있을까요?¹⁾

그런데 발명과 상관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에디슨까지는 발명과 연결이 되는데, 카카오톡의 성공과 통신사와의 갈등개선이 어떻게 발명과 연결

주 1) 카카오톡 관련 내용은 4월 13일자 한국일보 인터넷판 기사를 참조하였습니다.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둘은 너무나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에디슨의 전구 발명과 카카오톡의 속제, 그리고 세상의 모든 발명은 '문제해결과정'이라는 큰 범주안에 자연스럽게 묶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발명은 무엇? 문제해결은 무엇?

사실은 발명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문제해결의 연속입니다. 열쇠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친구의 비판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교통체증을 우회하는 최선의 길은 무엇인지에서부터 방사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하루가 멀다하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는 어떻게 안정시켜야 하는가라는 거시적인 문제까지 인간의 삶과 사회의 발전은 '문제를 규정'하고 '이를 해결'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문제를 규정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이 집약된 결정체가 발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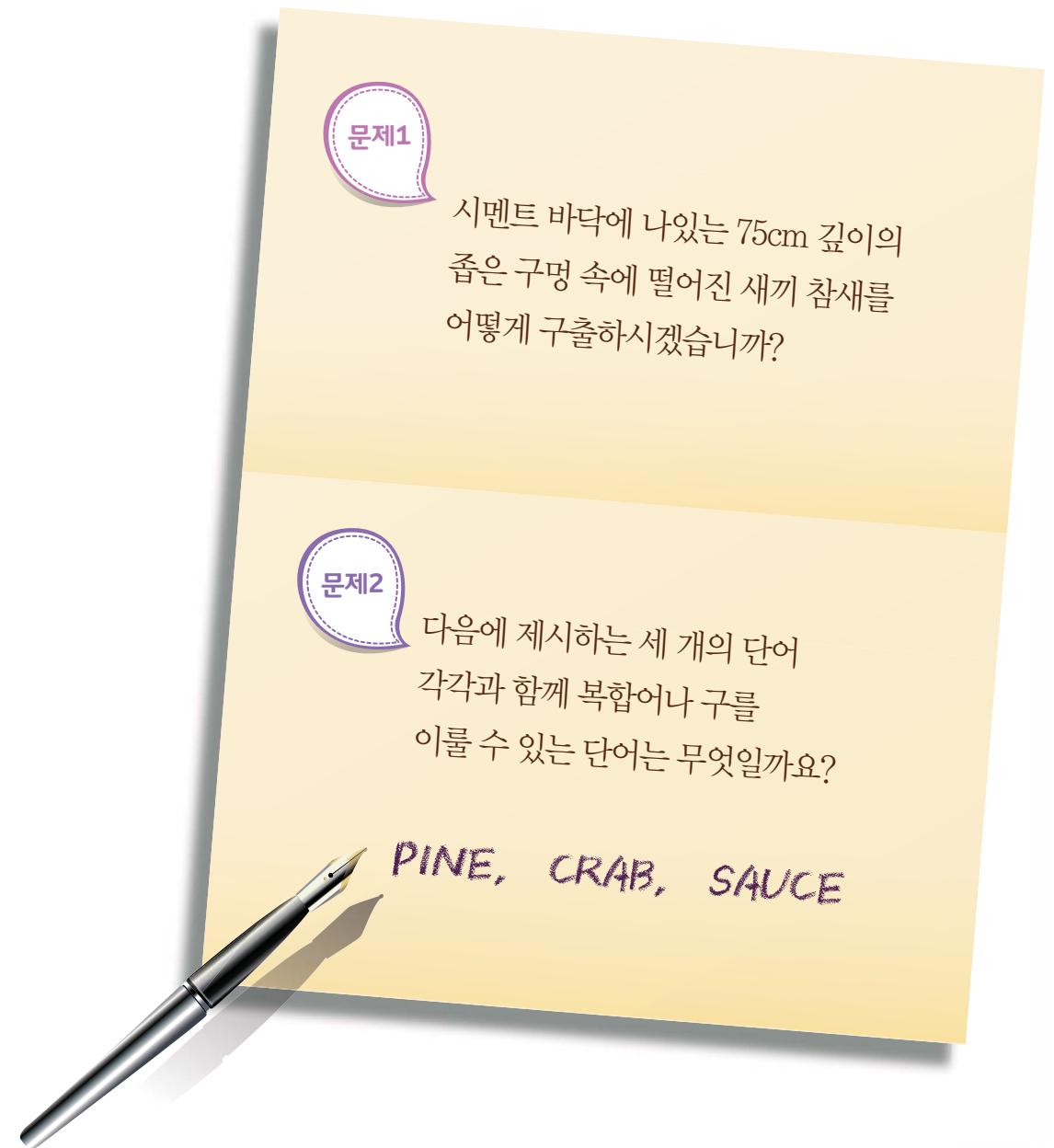
다시, 발명을 하면 뭐가 좋을까?

발명을 하면 창의적 사고능력이 증진된다고들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하고, 얻고 싶어하는 창의성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기에 발명을 통해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걸까요? 이쯤에서 발명의 정의를 한 번 보겠습니다.

“발명이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세상에 없는 것을 새로이 창출해내는 것이다. 금속 활자의 발명, 휴대폰의 발명과 같은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위 정의상으로 보자면, 발명의 과정 중에서 지금까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 중에 존재하면 인간의 생활을 더욱 개선시킬 수 있는 기능을 찾아 내는 것은 **'문제를 규정'** 하는 활동입니다. 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창안해 내는 과정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문제를 발견해내는 단계에서도 창의성은 필요합니다. 창의성은 바로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실현 가능하고, 독창적이며 가치있는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 문제해결과정'으로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선현들은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자녀에게 고전을 읽혔다고 합니다. 창의적인 사고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발명만한 훈련이 없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발명의 효과에 대해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 호에서 전하기로 하고, 이번 호는 다음의 문제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답 역시 다음 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1

시멘트 바닥에 나있는 75cm 깊이의 좁은 구멍 속에 떨어진 새끼 참새를 어떻게 구출하시겠습니까?

문제2

다음에 제시하는 세 개의 단어 각각과 함께 복합어나 구를 이룰 수 있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PINE, CRAB, SAUCE

최민경 전문위원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심리학 박사 / 인지 및 발달심리학 전공
i321@kipa.org / 02-3459-2743



영재기업인의 핵심역량: 3. 리더십

경영학자 Quinn(1996)에 따르면, 리더는 사람, 변화, 일, 관리 모든 면에서 균형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조정자, 혁신가, 행동하는 인간, 위험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역할모델에서 보듯이 리더십이란 ‘사람(People)’과 관련해서는 구성원의 몰입도와 사기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말하고, ‘변화(Change)’와 관련해서는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제품 및 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의미하며, ‘일(Task)’에 관련해서는 높은 생산성과 수익의 창출을 통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말하고, ‘관리(Management)’와 관련해서는 경영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말합니다.

리더의 역할은 사람, 변화, 일, 관리 각각의 측면에서보다 이 모든 것의 균형을 아우르는 데 있습니다. 큰 조직이던, 작은 조직이던 위의 네 가지 측면에서 강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조직의 리더는 조직 내·외부 환경을 고려하여 이 네 가지 측면이 골고루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재산기반 영재기업인이 기업을 설립하고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리더십만큼 중요하고 필수

적인 역량이 있습니다. 차세대영재기업인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은 Quinn(1966)의 연구와 국내의 기업 및 컨설팅사의 역량사전, 국내 다양한 전문가들의 협의회를 거쳐 다음과 같이 정의 되었습니다.

“차세대영재기업인의 리더십이란 팀원들의 과제에 대한 몰입과 사기를 유지시키고, 다양한 환경 및 주제에 신속하게 적응하여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궁극적으로 팀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열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이다.”

그 하위역량과 구성요소 및 개념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학부모님께서 자녀의 리더십정도를 알고 싶다면 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자녀가 팀활동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물어보십시오. 표에 있는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다음과 같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적극 주도하는가?

둘째,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어 자신이 추진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하는가?

셋째,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친구들과 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가?

학부모님께서 자녀의 리더십을 키우고 싶으시다면, 개인 활동보다는 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유하십시오. 그리고 팀활동에서 자녀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표와 비교하여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학부모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연하게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리더십능력 하위역량 및 개념



하위역량	구성요소	개 념
비전 설정 및 공유능력	비전 설정 및 제시능력	주요 환경 및 이해관계자의 기대와 요구를 바탕으로 도전적이고 실천가능한 공동의 비전을 설정하고 제시하는 능력
	비전 공유 및 리드능력	설정된 비전의 목표를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독려하는 능력
팀워크능력	관계지향성	사람들 간의 개성, 서로 다른 관점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다양한 상황, 개인 또는 집단 등에 대하여 자신을 융화하려는 성향
	신뢰형성능력	스스로 말과 행동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타인의 결정이나 판단을 신뢰함으로써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믿고 이해하는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는 능력
	갈등관리능력	갈등상황에 관련된 사람들의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 등을 파악하고, 갈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갈등 당사자들 간의 원만한 해결책을 유도하는 능력
네트워킹능력	네트워크 구축능력	원활한 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나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주도적으로 구축하는 능력
	네트워크 유지능력	주요 파트너와의 상호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주요정보를 공유하도록 주도하는 능력
의사결정능력	판단력	체계적 논리와 근거에 따라 요구에 맞는 타당한 결론을 내리고 객관적인 기준과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의사 결정하는 능력
	결단력	잡은 의견교환과 주의 깊은 관찰을 통해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의사결정하는 능력
글로벌마인드	외국어능력	글로벌 환경에서 통용되는 영어 또는 제2외국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 표현하는 능력
	다문화수용능력	글로벌 환경에 따른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다문화적인 가치관을 수용하여 유연하게 적응하는 능력
	국제동향 이해능력	관심분야에 대한 국제적 이슈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능력

이 윤 조 전문위원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교육학 박사 / 직업교육, 환경교육 전공
yo3283@kipa.org / 02-3459-2744



한 뼉 더 사랑하기 ♡

우리 아들 객재현!

우리 재현이에게 어렵게 썼다가 차마 못 보낸 편지가 있었다. 우연한 기회에 '일세'를 읽고 용기를 얻어 공개하기로 마음먹었지. 나 자신도 힘들게 지나온 지난 한 해의 일들을 뒤돌아 볼 겸... 그냥 편하게 생각하기로 했다.

너는 어려서부터 무엇을 하든 엄마의 기대 이상으로 잘 해 주었지. 어떨 땐 그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서 조금이라도 기대 이하의 결과가 나오면 엄마랑 재현이가 서로 힘들어 하기도 했었지.

작년 연말에 너의 솔직한 얘기를 듣는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 앞으로 언젠가 더 큰 일이 생겼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 상상하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지난해에 겪었던 귀중한 경험 덕분에 이들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 생각이 바르고 성실한 재현이에 대해 무슨 걱정이 그리 많겠냐만 그래도 너의 '미래'를 생각하며 가끔씩 엄마 '고집'을 너무 주장해 미안하기도 했지.

작년 4월부터로 기억 되는데 네가 부산영재고등학교에 지원 했을 때의 이야기를 잠시 하마. 다름 아닌 입학사정관 전형이라 엄마는 우리 아들에게 큰 자신감이 있었다. 지금까지 뭐든 스스로 잘 해왔기에 지나온 너의 독특한 모습들을 간직한 자료들을 찾아가면서 엄마 마음이 벽차오르는 느낌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네가 경험한 것들은 영재고 진학을 위해 형식적으로 준비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어려서부터 너는 과학적 현상에 관심이 많았지. 초등학교 4학년 때 뜬금없이 지구의 자전이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엉뚱한 상상을 하거나, 6학년 때는 로또 복권에서 1등에 당첨될 확률을 혼자 계산해 낸 적도 있지. 평소 생활 속에서 수학이나 과학적인 현상에 대해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는 아빠의 도움과 영재고는 너 같은 아이를 뽑기 위해 생겨난 것이라는 주위 분들의 격려가 있었기에... 엄마는 최종 합격이란 결과는 몰라도 입학사정관만이라도 만나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너 또한 그랬었지? 하지만 결과는... 너 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사정관조차도 만나보지 못했지.

현실은 뭐랄까 이미 그렇게 될 줄 알았다는 듯이 나타났다. 선행한 적도 없이, 올림피아드 문턱엔 가보지도 못한 아이가 어떻게 영재고에 지원할 수 있냐는 듯이... 하지만 엄마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 교육 한 번 없이 학교와 스스로의 힘으로만 교육청 영재원 교육과 KAIST 차세대영재기업인교육원에 뽑힌 네가 영재고에 합격해 혼자 힘으로 충분히 해 낼 수 있다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1차 전형에서 떨어지고 나니 역시 학원 교육 없인 영재학교나 과학고는 불가능하다는 주변의 아쉬운 얘기들만 듣게 되었다. 재현이는 워낙 성실하기 때문에 대치동 학원가에서 조금만 교육을 받았었다라도 올림피아드에서도 좋은 성적을 냈을거고 그래서 1차에서 합격했다면 입학사정관 전형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도 있었을 터인데 엄마의 바보스런 교육관 때문에 떨어진 것 같아 엄마가 많이 힘들었다.

영재고 실패 후 미련이 남아 과학고에 지원하라고 했던 엄마의 계획은 너무나 무모했다. 이미 각종 유명 학원에서 학습한 학생들 대부분이 그대로 과학고에 합격이 되고 작년에 요행히 과학고에 합격한 학생들 중에선 선행이 안 돼 내신 경쟁 대열에서 쳐지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충고도 받았다. 그러면서 너의 입학 지원을 조심스레 만류하며 진정으로 걱정해 주는 엄마 친구도 있었다.

그 후 네가 고등학생이 되어 이제부터는 대입 전형과 무관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지금까지 한 번도 가져보지 않는 경험들을 했다. 대치동 명문 학원가를 기웃거리며 진학 정보를 알아보았다.

학교 외에 유명한 소식통이라 여겨지는 사이트나 심지어 신문들에서조차 너희들의 개성이나 고등학교 학생이 가지는 특징은 무시된 것만 같았다. 내용을 읽다보면 다양성과 개성을 중요

시하면서 꼭 국영수가 아니어도 명문대에 갈 수 있는 것처럼 말 들은 하지만 자세히 보면 내신 점수가 완벽하게 준비된 후에나 가능한 일이었다.

입학 사정관 전형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금의 시기는 한창 사회적인 현상들에 관심을 가지며 이것저것 다양한 분야의 경험들을 가져 볼 시기라 생각되는데 입학 사정관제에 대비 하라는 명목 하에 이미 어려서부터 한 방향으로 진로가 결정이 되어 일관성 있게 준비된 경력을 우선시 하고 그것이 당락을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여겨진다. 즉, 각종 대회나 활동 경험들조차 일관성을 강조 하며 자료를 챙기라는 충고에 엄만 황당하기만 했다.

시간은 어느 덧 3월의 끝자락이다. 잠시 혼란스러웠던 시간들 속에서 엄마도 너도 힘들었지만, 일반고로 진로를 결정하면서 또 다시 혼자서 잘 해 볼 거란 결심으로 자신을 믿어달라는 너에게서 엄마는 가능성과 희망을 보았다. 지금까지 성실히 보여 주었던 네 모습을 보면 엄만 그동안 쓸데없는 걱정을 하였던 것이다.

이젠 좀 편하다. 너의 뜻대로 너에게 소중히 주어진 시간들을 고민하면서 학교생활이나 지금 다니고 있는 카이스트 차세대영재기업인교육원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임했으면 한다. 교육과정도 학교 학습과는 연관성이 다소 떨어져 힘들겠지만 학교에선 배울 수 없는 경험들이고 다양한 학문 분야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라 본다.

너 자신의 발전을 위한 교육이나 개발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멋진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역량도 쌓아가길 바란다. 네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인연이 되어주고 그래서 함께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재현아,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너의 인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고등학교 시절에 마음껏 고민하고 연구하고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멋진 사회인으로 커 가는데 기본 바탕이 쌓일 수 있는 시간들이길 바란다. 더운 여름 날 혼자서 달려가고 있는 레이스에 언제나 시원한 바람으로 네 곁에서 응원하마.

하늘이 맑다. 옆 나라의 슬픈 소식으로 대한민국에 사는 것에 안도할 수도 있지만 너무 피해가 커가는 것을 보니 마음이 무겁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에, 소소한 일상에 감사하다.

사랑한다. 아들이

박은희님

KAIST 차세대영재기업인교육원 1기(서울오금고등학교 1학년) 객재현 학생 어머니



수기 공모 및 의견 수렴

〈일세〉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로 보내주세요. 〈일세〉에 대한 의견이나 기사에 대한 아이디어 또한 환영합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수기 분량 A4용지 한 페이지
- 접수처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최민경 전문위원

Tel. 02)3459-2743 E-mail. i321@kipa.org web. www.ip-gifted.org/cgye





4월 교육

온라인 교육 : 기본과정(2기) 학생들은 지식재산권, 미래 인문학, 미래기술(중)/지식융합(고) 강의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심화과정(1기) 학생들은 융합지식경영, 미래 기술/기술융합, 창조인문학 강의 수강과 전문지식 심화를 위한 블로그 활동과 커뮤니티 활동을 병행합니다.

온라인 교육 학생 후기 ▶

〈인문학 심화〉

"작년까지는 세계 역사의 흐름에서 큰 획을 그었던 기업을 알아 보았다면, 이번 인문학 강좌들에서는 한국역사의 흐름과 함께 개방개척 시대의 혼란스러움을 배울 수 있는데, 앞으로 더욱 많은 기대를 하게 되는 강의였습니다!"

오프라인 교육 : 기본과정(2기) 학생들에 대해 2박3일간(4.8~10) 지식재산 창출 집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IP-CEO로의 성장을 위해 IT·BT·ST·NT·ET 등의 영역에서 지식재산 창출의 기반이 되는 특허출원 전 과정을 실습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23명의 학생들이 각 1건씩 특허출원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9명의 학생들은 추후 출원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오프라인 교육 학생 후기 ▶

"특허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내가 과연 특허를 쓸 수 있을까 걱정을 하면서 캠프에 왔는데, 2박 3일 동안의 교육을 통해 직접 특허를 출원하니 정말 신기하고, 더 많은 특허를 쓸 자신감이 생겼다."



5월 교육 일정

온라인 교육 : 온라인 강의를 계속되며, 심화과정에 '기업사례연구' 강좌가 새롭게 실시됩니다. 추가로 쟁점 주제에 대한 온라인 토론이 시작됩니다. 의사소통 역량 강화 및 건전한 사회의식을 고취하고 집단지능 구현을 목표로 한 달에 한 가지 주제에 대해 토론하게 됩니다.

오프라인 교육 :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1박2일간(5.28~29, 대전 KAIST 본원) 실시됩니다.

* 심화과정 : 특허 아이디어 도출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역량 함양을 위해 TRIZ를 학습합니다.

* 기본과정 : 미래기술 분야 중 IT분야(스마트폰, SNS)를 주제로 하여 IP-C-E-O협업모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캠프로 진행이 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됩니다.

* IP-C-E-O 협업교육 프로그램 : Issue-Posting (분야별 교육을 통한 문제제기), Collaboration(조별 활동을 통한 아이디어도출), Elaboration(발표, 전문가 평가 및 피드백), Outlying(사후관리를 통한 실적화)



4월 온라인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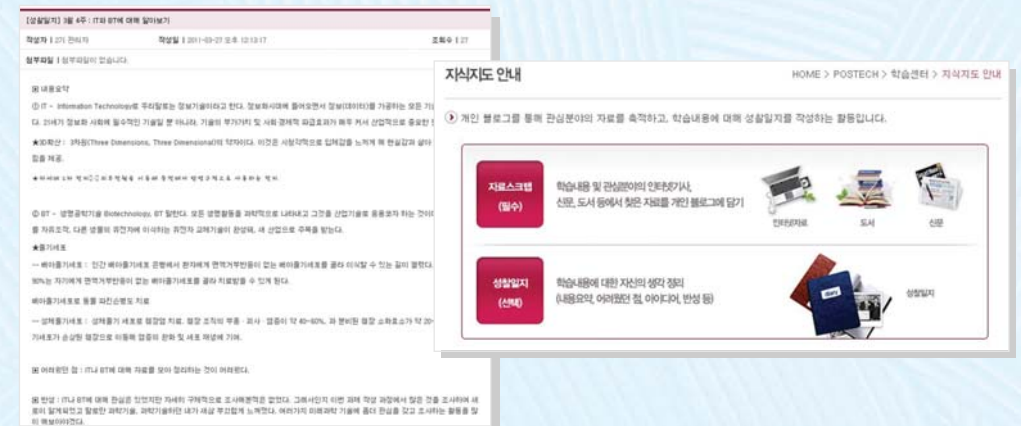
현재 1, 2기 교육생을 대상으로 각각 'Develop the future', 'Dream the future' 라는 테마 아래 온라인 교육이 진행 중입니다. (본 교육원은 사업제안 과정(기본)의 경우, 'Dream the future', 'Discover the future', 'Develop the future', 'Deliver the future'의 테마로 교육을 진행함)

6T분야 탐색 : 2기 교육생의 경우 자신의 관심기술 분야를 선정하기 위해 6T(미래기술 유망 분야인 IT/BT/NT/ET/ST/CT) 분야별 기술 동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가치관, 꿈, 흥미를 스스로 탐구해 보기 위한 소명 찾기 과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환경 분석/기업가 정신 독서 토론 : 1기 교육생의 경우 자신의 가치관을 토대로 선정한 관심분야의 기술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업 환경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4월에는 거시환경 분석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며, 이를 자신의 관심 분야에 적용하여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의 동향을 분석하는 과제를 수행합니다. 더불어 기업가 정신을 키우기 위해 교육원에서 추천한 도서 2권을 읽고 주어진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온라인을 통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지도 만들기 : 교육생들은 기본적으로 개인 학습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이 조사하고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지식지도'를 만들고, 학습에 대한 성찰일지를 작성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월 교육 일정

관심분야의 기술 동향 탐색 : 2기 교육생의 경우 6T 분야별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관심분야를 정하고 그와 관련하여 기술동향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는 밑바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가 정신을 기르기 위해 교육원에서 추천한 도서 2권을 읽고 주어진 주제에 대한

토론을 수행하게 됩니다.

거시 환경 분석 : 1기 교육생의 경우 4월부터 시행한 거시환경 분석 과정을 계속적으로 학습하며, 기업가 정신과 관련하여서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온라인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월간 앞세 April 2011 Vol. 4

발행일 2011년 4월호 제 1권 4호(통권4호) 발행처 한국발명진흥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우) 135-980)

발행인/편집인 허 진 규 인쇄처 서울폴리컴 (02)783-0778 인쇄 2011년 4월 21일

발행 2011년 4월 25일

「한국발명진흥회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지 월간 앞세」 * 본지는 한국도사지정윤리위의 사전요구를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와 본회의 견해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